

# US여자오픈, 이번에도 韓선수 품에?

오는 14일 개막, 한국선수 28명 출전...역대 9번째 우승 도전  
총상금 500만 달러 시대 열어 여자골프 대회 중 최고 권위 대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US여자오픈' 우승에 도전하는 박인비(왼쪽부터), 유소연, 전인지.

‘총상금 500만 달러(약 57억원), 우승 상금 90만 달러(약 10억원)’ 역사와 전통, 최고 권위의 US여자오픈이 14일(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트러스트 내셔널 골프장(파72·6732야드)에서 열린다. 미국골프협회(USGA)가 주관하는 내셔널 타이틀 대회로 1946년 시작해 올해 72회째를 맞는 여자프로골프 대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US여자오픈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5대 메이저 대회 중에서도 다른 4개 대회와 그 규모를 달리 한다. 올 시즌 US여자오픈을 제외하면 다른 메이저 대회 총상금 규모는 270만~350만 달러다. US여자오픈은 지난해 총상금 450만 달러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는 50만 달러를 늘려 여자 골프 사상 처음으로

로 총상금 500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우승 상금이 81만 달러에서 9만 달러 늘어난 90만 달러다. 한국프로골프(KLPGA) 코리아투어 중 총상금 3억원 대회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US여자오픈 우승상금 만으로도 KLPGA 투어 대회 2~3개를 열 수 있다. US여자오픈은 남자 대회인 US오픈과 마찬가지로 미국골프협회(USGA)가 주관한다. LPGA 투어 일반대회 조차 스폰서 없이는 대회를 연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USGA는 매년 상금규모를 늘려 명실상부 여자골프 대회 중 최고 권위 대회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US여자오픈은 한국이 여자골프 세계 최강국 지위에 오르는 데 주춧돌이 됐다. 1998년 US여자오픈 맨발 투혼을 불사르며 챔피언에 등극한 박세리(39)의 감동 스토리는 한국 골프역

사에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다. 박세리의 US여자오픈 제패 이후 한국 골프는 급성장했고, 10년 넘게 황금시대를 이어오고 있다. 2005년 김주연(36)이 깜짝 우승을 차지했고 박인비(29·KB금융그룹)는 2008년과 2013년 두 차례 정상에 올랐다. 2009년 지은희(31·한화), 2011년 유소연(27·메디힐), 2012년 최나연(30·SK텔레콤) 2015년 전인지(23)까지 7명의 한국선수가 총 8승을 거뒀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무려 6차례나 정상에 등극했다. 2010년 이후 4승을 쓸어 담은 저력을 보여줬다. 한국 선수들은 이러한 기세를 이어 올해 US여자오픈을 태극양자군단의 독무대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올해 출전 선수 156명 가운데 한국 선수는 28명이다. 전체 18% 달하는 수치다. 굳이 각국에서 활약하

는 교포선수들을 열거하지 않아도 개최국 미국(5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커리어 골든그랜드 슬램에 빛나는 박인비는 남은 골프 인생에 있어 최우선 목표로 메이저 타이틀 사냥을 품었던 만큼 이번 대회 승부욕을 불태우고 있다. 이미 2차례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박인비가 우승을 추가할 경우 아 니카 소렌스탐에 이어 11년 만에 US여자오픈 3승이라는 골프 역사에 한 획을 긋는다. 우승 경험을 가진 현 세계랭킹 1위 유소연도 시즌 3승이자 통산 3번째 메이저 타이틀 수집에 도전한다. 올해의 선수상과 상금 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유소연으로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기회다. 올 시즌 준우승만 4차례 하며 아직 우승을 신고하지 못한 전인지도 우승과 함께 준우승 징크스를 깨고 큰 대회에 강한 기본 좋은 징크스를 이어가고자 한다. 지난 주말 ‘스베리 크리 클래식’ 최종일 9인더파를 몰아치며 3위에 오른 김세영(24·미래에셋)이 생애 첫 메이저타이틀을 노린다. US여자오픈에서 준우승만 두 차례 했던 양희영(28·PNS)과 지난해 비회원 자격으로 3위를 했던 박성현(24·KEB하나은행)도 우승을 노린다. 이밖에 KLPGA 투어 강자 고진영(23·하이진진로), 배선우(23·삼천리), 이승현(26·NH투자증권), 김민선(22·CJ오쇼핑), 이정은(21·토니모리), 장수연(23·롯데)을 비롯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신지애(29), 김하늘(31·하이진진로)도 우승 사냥에 동참한다. 한국여자골프의 미래 아마추어 3인방 최혜진(18·학산여고), 성은정(18·영파여고), 강소희(18·은광여고)도 파란을 예고했다.



## ‘옵트아웃’ 내걸고 극적인 빅리그 승격 황재균의 반전 드라마

메이저리거를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이어간 황재균(30·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이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극했다. 2015시즌을 마치고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했다가 무용철의 아픔을 겪은 황재균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으로 다시 미국 문을 두들겼다. 국내 구단들의 거액 제안을 모두 뿌리치고 샌프란시스코와 스플릿 계약을 맺은 황재균은 시즌 개막 이후 3개월 동안 마이너리그에만 머물렀다. 메이저리그 입성의 길이 보이지 않은 황재균은 결국 6월27일 계약 조항에 포함된 ‘옵트아웃’ 조항을 실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샌프란시스코는 황재균을 붙잡기 위해 하루 뒤인 6월28일 빅리그로 콜업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기회를 잡은 황재균은 6월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AT&T 파크에서 벌어진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고, 데뷔 첫 안타를 결승 솔로포로 장식하며 대반전을 이끌어냈다.

▲무용철 이름 딴 FA 거액 제안도 거절  
황재균은 2015시즌을 마친 뒤에도 메이저리그에 도전장을 던졌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서였다. 하지만 그에게 입찰액을 써낸 구단은 없었다. 황재균은 주변의 비웃음을 샀다. 앞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러츠), 박병호(미네소타 트윈스), 김현수(발티모어 오리올스)와 비교해 황재균이 국내 무대에서 남긴 눈에 띄는 기록은 없었다. 이들과 비교해 장타력뿐 아니라 타격의 정교함, 수비에서 모두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황재균은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점을 찾아내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지지했다는 이야기들을 들은 황재균은 곧바로 타격 자세를 간결하게 수정했다. 2015년 144경기에서 534타수를 소화하는 동안 122개였던 삼진 개수는 지난해(127경기 498타수) 66개로 확 줄었다. 또 지난해 타율 0.335(498타수 167안타) 27홈런 113타점을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다. 또 외야 수비 연습을 하는 등 타자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FA가 된 황재균은 또다시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했다. 그의 원 소속구단인 롯데 자이언츠를 비롯해 국내 구단들이 거액을 제시했지만, 이를 뿌리치고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섰다. 시즌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훈련하던 황재균은 FA 협상에 진척이 없자 메이저리그 20개 구단 스카우트 앞에서 ‘쇼케이스’까지 펼쳤다. 샌프란시스코와 협정계 계약을 맺었지만 스플릿 계약이었다.

▲결승 솔로포 누구보다 화려했던 데뷔전  
황재균은 6월29일 꿈에 그리던 AT&T 파크에 발을 내딛었다. 브루스 보치 샌프란시스코 감독은 트리플A에서 막 올라온 황재균을 5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라인업에 포함했다. 황재균의 메이저리그 데뷔 첫 안타는 세 번째 타석에서 나왔다. 데뷔 첫 안타는 다름 아닌 홈런이었다. 황재균은 3-3으로 맞선 6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콜로라도 선발 카일 프리랜드의 3구체 체인지업을 노려냈다. 타구는 좌중간 담장을 훌쩍 넘어갔다. 팀에 리드를 이끄는 홈런이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가 5-3으로 승리하면서 황재균의 데뷔 첫 안타이자 홈런은 결승 솔로포가 됐다. 한국인 메이저리거가 데뷔전에서 홈런을 친 것은 황재균이 최초다. 황재균 이전에 가장 빨리 홈런을 신고한 것은 지난해 박병호와 지난해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활약한 이대호(롯데 자이언츠)다. 둘 모두 데뷔 3경기 만에 홈런을 때려냈다. 데뷔 3타석 만에 홈런을 신고한 황재균은 한국인 메이저리거 최소 타석 데뷔 홈런 기록도 바꿨다. 창단 133번째를 맞은 샌프란시스코 구단 역사에서 빅리그 데뷔전에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한 것은 2014년 애덤 듀발 이후 3년 만이다. 그야말로 대반전 드라마를 써낸 황재균에게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험난한 경쟁, 마지막 순간에 찾아온 기회  
초청 선수 신분으로 스프링캠프에 참가한 황재균은 연일 맹활약을 선보였다. 시범경기 27경기에 출전한 황재균은 타율 0.333(48타수 16안타) 5홈런 15타점 7득점으로 활약했다. 하지만 25일 개막 엔트리에 황재균의 이름은 없었다. 황재균은 샌프란시스코 산하 트리플A 팀인 새크라멘토 리버캐츠 소속으로 시즌을 시작했다. 황재균은 트리플A에서 3개월 동안 68경기에 출전, 타율 0.287(254타수 73안타) 7홈런 44타점 33득점으로 출루율 0.333, 장타율 0.476으로 준수한 성적을 거

### 최연소 대표팀 감독은 김정은...허정무 ‘최장’

1948년 한국 축구대표팀이 첫 출발한 이래 70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인물들이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경기를 지휘했다.

▲신태용이 50번째 = 지난 1948년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축구대표팀이 처음 구성된 이래 지금까지 국가대표팀 감독 자리에 오른 사람은 총 50명. 가장 최근에 선임된 신태용 감독은 50번째다.

▲다섯 번이나 사령탑 올랐던 박종환 = 한 번도 하기 힘든 국가대표팀 감독을 다섯 번 씩 역임한 사람도 있었다. 박종환 감독은 1983년부터 1996년까지 다섯 번 대한축구협회의 호출을 받았다.

▲통산 최장기간 감독은 허정무 = 지금까지 가장 오랜 기간 대표팀 감독으로 재임한 지도자는 허정무다. 그는 2차례(1998년 8월 - 2000년 10월, 2008년 1월 - 2010년 6월)에 걸쳐 총 4년 9개월 동안 대표팀 벤치를 지켰다.

▲최연소는 김정남, 최고령은 김용식 = 역대 가장 어린 나이에 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사람은 김정남이다. 1977년 최정민 감독 아래 코치로 있던 그는 최 감독이 건강 악화로 사퇴하자 34살의 나이에 대표팀 감독이 됐다. 한국인으로서 최고령 대표팀 감독은 ‘한국 축구의 대부’ 김용식 선생이다. 김용식은 1969년 59세의 나이에 멕시코 월드컵 예선에 나선 대표팀을 맡았다. 외국인 최고령 감독은 올해 슈틸리케의 63세다.

### 에버턴으로 돌아간 루니 “은퇴 위한 복귀 아냐”

“나는 뭘 준비 돼 있고 이기고 싶어...도전에 흥분”



웨인 루니(오른쪽)와 로날드 쿠만 감독.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나 에버턴으로 돌아간 웨인 루니(32)가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복귀를 선택했다는 주장에 고개를 저었다. 루니는 11일(한국시간) 영국 BBC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은퇴를 고려

### 나달, ‘5시간 혈투’ 끝에 밀러에 덜미

15차례나 그랜드 슬램 대회 정상을 밟았던 나달은 밀러의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조기에 대회를 마감했다. 나달은 워싱턴에서 유독 힘을 못 쓰고 있다. 마지막 8강 진출은 6년 전이다. 2013년에는 1라운드에서 탈락했고 2012년과 2015년에는 2라운드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날 나달은 첫 두 세트를 맥없이 빼앗겼다. 3.4세트를 때내며 분위기를 가져오는 듯 했지만 끝내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

나달은 “밀러의 플레이가 정말 좋았다. 특히 마지막 세트에서는 완벽했다”면서 “좋은 경기를 했지만 패한 것 역시 사실”이라면서 패배를 인정했다. 밀러는 나달보다 7개가 많은 30개의 서브 에이스와 공격적인 발리로 대어를 뒀다. 밀러는 “진념을 유지했고 결국 이룰 수 있었다”고 기뻐했다. 또 다른 16강전에서는 지난해 우승자인 앤디 머레이(30·영국)가 베노이트 파이레(28·프랑스)를 완파하고 8강에 안착했다.

두 차례 워싱턴 우승을 포함해

뉴시스